

정부혁신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배 포 일	2019. 6. 28.(금)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해양생태과	담 당 자	• 과장 명노현, 행정사무관 이형민 • ☎ (044)200-5310, 5315 • 해양생태팀장 황인서, 대리 최유나 • ☎ (051)400-7961, (02)3498-7165
	해양환경공단		
보 도 일 시		2019년 7월 1일(월) 석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월) 06:00 이후 보도 가능	

유착나무돌산호, 예쁘다고 꺾으면 안돼요!

- 해양수산부, 7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유착나무돌산호'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바다 청정해역에서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유착나무돌산호'를 7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유착나무돌산호는 돌산호목 나무돌산호과에 속하는 종으로, 단단한 나무 모양의 몸통을 가졌다. 식물처럼 생겼지만, 가지 끝에 달린 촉수*를 뻗어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자포동물**이다. 몸통과 촉수는 밝은 주황색을 띠며, 원통형의 굵은 가지는 이웃 가지와 서로 붙어있다. 이 산호는 청정해역의 수심 20~100m 암반에 붙어 서식하며, 매우 느리게 성장하기 때문에 한 번 훼손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 촉수: 몸 앞부분이나 입 주위에 있는 돌기 모양의 기관

** 해파리, 산호, 말미잘 등이 속하는 동물군으로, 뼈와 항문이 없고 촉수가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북부(추자도)와 남해 완도해역, 동해 왕돌초와 울릉도·독도 등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대부분 군락을 이루지 않은 독립개체만 발견되었으나, 지난 2016년 독도에서 폭 5m, 높이 3m의 국내 최대 규모 군락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유착나무돌산호에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공생하고 있어서 해양생물 다양성을 높여주고,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를 감지하는 지표*로도 활용

되어 그 보존가치가 높다. 이 때문에 유착나무돌산호의 주 서식지인 울릉도가 동해안 최초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2014년)되기도 하였다.

* 온난화에 따라 수온이 상승하면 서식지의 위도도 상승

그러나 어업용 로프, 폐어구에 의한 훼손과 해양레저(스쿠버다이빙) 활동 중 무분별한 채취, 갯녹음 현상* 등으로 인해 유착나무돌산호의 서식이 위협받고 있다.

* 연안 암반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흰색의 석회조류가 달라붙어 암반지역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바다 사막화’라고도 함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유착나무돌산호를 해양보호생물(법정 해양보호종 명칭)로 지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하여 서식현황을 파악하고,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복원사업’을 수행하는 등 서식지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착나무돌산호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유착나무돌산호 군락지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건강한 해양생태계 그 자체이다.”라며, “해양레저 활동 중에도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착나무돌산호 군락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착나무돌산호를 비롯한 보호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지켜주세요!!

이달의 보호해양생물

예쁘다고 꺾으면 안 돼요!

단단한 나무 모양의 밝은 주황색을 띠는 유착나무돌산호는 식물의 생김새를 가졌지만 가지 끝의 촉수를 뻗어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자포동물이다. 굵은 원통형의 가지가 이웃 가지와 서로 유착해있고 청정해역의 수심 20~100m 암반에 부착하여 서식하며, 매우 느리게 성장하기 때문에 훼손되면 회복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어업용 로프, 통발 등 폐어구에 의한 훼손과 더불어 일부 해양레저(스쿠버다이빙) 이용자의 무분별한 채취, 갯녹음 현상 등으로 인해 서식이 위협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유착나무돌산호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분포 및 생태적 특성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북부(추자도)와 남해의 완도해역에서부터 동해의 왕돌초와 울릉도·독도 등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대부분 군락을 이루지 않는 몇몇 독립적인 개체만 발견되었으나, 지난 2016년 독도에서 폭 5m, 높이 3m의 국내 최대 규모 군락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Dendrophyllia cribrosa

유착나무돌산호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진출처: 연세대학교 해양생물연구소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